

# 한국 전통사상과 디자인 DNA

(The Design DNA in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송진희\*

Jean Hee, Song

## 요약

국가와 민족마다 다양한 고유 사상과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후손들의 DNA로 남아 창조적 작업의 원천을 이룬다. 전통문화 속의 디자인 DNA는 현대 디자인의 뿌리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전통 문화유산 속에 어떠한 사상들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으며, 나아가 이처럼 과거부터 내려오는 디자인 DNA가 현대 Korea- Design에 활용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디자인이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냉동된 정보임을 인식하게 되고 전통과 문화의 DNA가 스며든 문화 콘텐츠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심어 : 디자인 DNA ; 한국 전통문화 ; 문화유산 ; 현재 한국디자인

## Abstract

Every nation and every people has its own tradition and culture that have uniquely developed throughout history. In due course, such tradition and culture form a design DNA serving as the fountainhead of various creative activities.

This paper is basically a general investigation on the traditional cultural legacy focused on the unique design DNA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culture. In particular, presenting the examples of innovation and creativity in the Korean traditional design, it attempts to analyze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following criteria: efficiency, purposefulness, aesthetics, and simplicity. The analysis confirms the fact that design is one of the important culture content resulted from its interaction with history and culture, which includes the influence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cultures.

- keywords : design DNA ; traditional korean culture ; cultural heritage ; modern korea design ;

## I. 서론

국가와 민족마다 다양한 역사적 전통과 문화 그리고 고유 사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고찰해 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통사상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같은 국가 문화사회적 배경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디자인의 DNA가 되어 창조적 작업의 원천을 이룬다. 수 천년전 우리 선조들이 남긴 전통 문화 유산들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아도 손색이 없는 좋은 디자인의 조건들 (창조성, 심미성, 경제성, 기능성 등등)을 이 잘 갖추

어져 있다. 전통문화 속의 디자인 DNA는 현대 디자인의 뿌리다.

태초에 사람들은 하늘에 흩어져 있는 별들을 그냥 바라보지는 않았다. 북두칠성이나 견우 직녀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적어 놓았다. 별을 만들어 낸 것은 하늘이지만 별자리를 만들어낸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별자리와 그 전설의 이야기들은 민족과 나라에 따라 다 달라진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철학과 사상을 주제로 자기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 속에서 개성 있는 디자인들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우

\* 정회원, 호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리는 “네이티브 디자인” 이라고 한다[1]. 개인과 집단의 여러 가지 생각, 즉 그 시대의 사상이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고, 문화는 생활양식을 낳고 사람들은 이에 부응하는 문화예술작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제작한다. 이 제작 행위는 곧 디자인이다. 그래서 사상과 문화 그리고 디자인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2]. 디자인이 생활문화로 간주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디자인이 시대와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한국디자인을 이해하는 출발점 역시 한국디자인의 원형인 한국 전통사상에 대한 이해는 필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사상의 원류는 한국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3] 왜 한국의 미가 자연미, 혹은 선의 미, 백의 미로 대표되는지 왜 한국을 상징하는 색이 오방색이 되었는지 왜 기념비적인 건축물은 하나같이 전통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지[4]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국인의 오랜 전통적인 생각, 사상의 흐름에 그 답이 있다.

본 논문은 동양사상의 흐름과 한국 전통사상 그리고 호남의 무등정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유산과 디자인 DNA를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이 같은 호남의 디자인 DNA가 오늘날 어떻게 다시 활용되어 Korea-Design을 이끌고 있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동양 사상의 흐름

#### 가. 한중일 사상의 흐름

한국의 철학과 사상은 아시아 문화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정신과 정서의 배경이 되었다. 서양과 동양은 사고와 시각을 달리하여 사물을 바라보았다. 디자인의 패러다임은 서구 산업사회로부터 주도적으로 창조되고 평가되어왔다. 인류는 21세기까지 혁명을 세 번 겪었다고 한다. 첫 번째는 농업혁명을 가져다 준 신석기 혁명이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며 세 번째는 정보혁명이다 [5]. 산업혁명은 1760년에 시작하여 1840년까지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는 전 세계인의 삶의 환경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먼저 대량 생산되는 산업적 가치에 우선하여 기업의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전개 되었다. 일단 삶의 편의를 추구한

관리 지배적 사고로서 출발한 서구디자인에 상반되게 아시아의 디자인은 자연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우주의 근원에 그 뿌리를 두고 삶의 지혜를 함축하는 것이었다. 당시 동양은 서양과 병렬적으로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상대적 개념이라기 보다 서양인의 사고 방식 속에 존재하는 표상이자 개념에 지나지 않았다. 동양에 대한 지배권과 제국주의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일련의 과정이 오리엔탈리즘이다. 원래 서양과 동양은 그 환경적, 인종적 차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근원을 달리하며 발전해왔다[6] 힘의 강자이던 서구가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를 문화의 우열로 규정하고 평가절하 했다. 넓은 의미에서 서양 철학적 사유의 근간이 개인중심적인 사고로 나타났다면 동양철학적 사유는 개인과 환경, 즉 자연까지 함께 고려하여 좀 더 포괄적이며 사람이 존재하는 그 주변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전개된다.

지금 21세기 가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정서적 사고를 기본으로 통합, 조화, 나눔 사회중시의 경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간의 관계성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어 기원전 오래전부터 공동체적 사고를 중시해온 동양적 가치와 많이 닮아가고 있다. 이러한 동양적 가치와 사고관은 21세기 디자인 가치를 전망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일찍이 기원전 공자 (BC 551~479)의 사상에서부터 출발한다.

동아시아 3국 즉 한국을 중심으로 주변국 일본과 중국의 사상의 뿌리가 되는 공자의 핵심 사상은 크게 인에 정진하고 예를 실천하는 두 가지로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이 개인적이고 내면적이라면 ‘예’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예의범절이자 여러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외적인 사회규범을 말한다. 법과 원리 도덕과 규범 등 외적인 규제 장치인 ‘예’는 ‘인’을 이루는 실천 방법이기 때문에 ‘인’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두 가지는 유가의 대표적인 덕목들로서 인에서 시작해서 예를 통해 완성 된다[7] 공자 이후 맹자 (BC 372~289)는 인을 강조하여 맹자의 하늘은 절대적이고 포괄적인 도덕적 힘을 상징하고 인간은 선함을 하늘로부터 부여 받는다는 낙관적인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한국은 맹자의 성선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통사상이 체계화되었다. 일본은 순자(BC 298~238)의 예를 중시하였다. 순자에게 하늘은 자연과 같은 단순한 우주의 운행 일뿐이고 도덕의 기준은 형이상학적인 산물이 아니라 오직 인간이 만든 문화·문명의 산

물이라는 성악설을 주장하였고 중요한 것은 '예'(禮) 라고 했다. 중국은 광활한 대지위에 동부는 맹자 서부는 순자의 사상의 영향을 받다보니 보다 중용(中庸)을 강조하였다[8].

이러한 고대의 사상을 원조로 훗날 서구의 근대화 바람 속에서 초기의 동아시아 3국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대응논리를 내세운다. 한국의 동도서기(東道西器), 중국의 중체서용(中體西用), 일본의 화혼양재(和魂洋才)가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 한중일 3국의 진로는 동일하지는 않았다[9].

## 2. 한국 전통사상과 호남의 무등정신

### 가. 한국 전통사상의 흐름

한국의 디자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정신의 바탕이 되는 한국 고유 사상과 철학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한다. 동이족(東夷族)은 우리 한국인의 시조이다. 역사의 초기인 상고대시대에 동이족의 근본 사상은 인(仁)사상이었다. 훗날 인(仁)이 인(人)의 어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인(人)의 근본을 인(仁)으로 생각한 것이다. 즉 仁의 실천을 통해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서로 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동이족 삶의 기본정신이였다.

또한 일찍이 동이족에게 하늘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하늘을 지향하고 일체를 실천하고자 했던 형이상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단군신화에서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개념이나 환국, 환웅의 의미는 인간이 곧 하늘이 될 수 있다는 고조선의 천인융합사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원전 동이족의 이러한 仁사상을 체계화 시킨 사람이 바로 공자이다. 공자의 仁사상은 제자 맹자에 이르러 성선설을 주장하고 천인무간, 인내천(人乃天)사상이 생겨났으며 이는 주자의 성리학으로 이어지고 퇴계, 율곡의 이기론에 이르기까지 유교의 仁사상은 우리 한국인의 민족정신이며 근본이다. 여기에 모든 진리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해 있다는 한국불교 특유의 일심사상과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일심(一心)에 근거를 둔 원효의 화쟁사상(和諍思想)도 우리 민족정신에 영향을 주게 된다[10].

아울러 인위적으로 도덕의 틀을 재단하고자 하는 유가사상에 반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다움이라는 도가사상(道敎)의 핵심인 노자와 장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이 민족정신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도교의 무위사상(老莊思想)의 대표적인 구절 노자 도덕경 1장의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는 인위적으로 이것이 道다 라고 道를 말하는 것은 道가 아니라는 의미로 사실자체의 바탕위에서 떠나지 않는 것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을 일체하지 말자는 것이다. 하늘을 존중하던 고대인들은 무속신앙과 함께 오랜 자연관찰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음양사상을 터득하였다. 음양사상은 천지의 자연운행을 음과 양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하는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세계관이다. 이는 후에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으로 전개가 되고 한반도 고대 세계의 세계관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인간 역시도 우주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음양사상의 핵심으로 한반도 고대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를 중요시하였다[11].

### 나. 광주, 전남의 무등정신(無等精神)

한국인의 근본정신과 고유 사상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형이상적 가치'를 선호하는데서 시작되었다. 호남에서도 역시 이러한 정신적 가치 계승이 이루어져 형이상적인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하다 보니 대의를 위해 희생하고 자유와 민주를 향한 열사들이 아주 많았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인내천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1894년의 동학 농민혁명부터, 1929년 학생독립운동, 1960년 4.19의거 그리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호남은 정치적으로 한국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 중심에 서게 된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 자라온 호남지역의 공동체 정신을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한 무등정신 또는 광주정신이라고도 한다. 호남의 정서를 대표하는 광주전남 지역의 대동정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는 민주, 인권, 평화를 기원하는 「UN인권도시」 지정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인본디자인 도시」를 선포하고 국제적으로도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한 기틀을 닦고 있다[12].

## 3. 지역 문화유산과 디자인 DNA

디자인을 평가 할 때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 생명존중 사상이 디자인에 내포될 때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디자인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자인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태고적부터 수많은 물건들을

만들어 왔는데 한결같이 생존과 생활에 직결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원초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13]. 이러한 맥락에서 각 지역의 문화유산은 원초적 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수 천년전 만들어진 선조들의 태초 디자인 속에 담겨져 있는 디자인 DNA가 21세기 하이테크 시대인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이어져 오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 가. 전남 나주 복암리 3호 고분

남도의 영산강 유역에서 많은 고분이 발견되었다. 그 중에서도 나주 복암리 고분은 특별한 형태의 고분이다. 이 고분의 봉분엔 아파트처럼 수많은 무덤이 만들어져 있다[14].



사진 1) 나주 복암리 고분(출처 : kbs)

위 그림에서처럼 이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통해 고분이 3c-7c에 걸쳐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무려 400년간에 걸쳐 제각기 다른 형태의 무덤들이 3층의 아파트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 고분 내에 400년 동안 41기의 다른 매장시설은 세계 최초의 별집형, 아파트형 고분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다[15]. 무덤 하나에서 다른 무덤의 형태만 7가지가 공존하고 매장시설이 총 41기나 얹혀있다.

즉 무덤방이 41개나 만들어져 있었다[16]. 4백여년 동안이나 오랜 세월을 거쳐 하나의 무덤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이다. 아파트는 제한된 공간의 도시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와 같은 아파트의 공간 배분 개념은 산업화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데 이미 2000여년 전 유례없는 아파트형 고분 형태로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의 효율성을 실현한 뛰어난 디자인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사진 2) 나주복암리 아파트형고분(출처: kbs)

#### 나. 전남 장성군 변이중(邊以中) 화차

전라남도 장성 봉암서원의 망암 변이중 화차(火車)는 422년전 1593년에 제작된 것이다. 행주대첩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비밀병기 '화차'가 420년 만에 복원돼 2011년 장성군 동화면 육군포병학교 훈련장에서 복원화차 발사시연회를 개최했다[17]. 변이중이 1592년 말에 자비로 300대를 제작하여 이듬해 권율장군에게 40여대를 지원하여 행주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하였다. 다른 화차들이 한 방향으로만 화기를 설치한 것과 달리 변이중 화차는 전면은 물론이고 좌우측면도 전면과 동일하게 총통을 설치했고, 화차의 총통수를 보호하기 위해 네 방향 모두에 방호벽을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느 화차보다도 탁월한 공격력과 방호력을 구비하였다[18].

효율성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무장된 이 화차는 행주대첩을 승리로 만든 주역이다.



사진 3) 망암 변이중 화차 (출처 : 장성화차박물관)

#### 다. 전남 고흥군 정걸(丁傑) 판옥선

고흥 출신(1514) 정걸장군의 판옥선은 영화 명량을 통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 졌는데, 판옥은 판자로 된 집이란 뜻이다. 1차적인 판옥선 디자인 컨셉은 적들이 배로 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활로 공격할 수 있도록 갑판 위에 있는 '판옥'이라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갑판은 2중 구조로 노잡이와 병사의 역할을 분업화 하였고 화포를 쏠 수 있게 설계하였다. 또한 바닥은 평평하게 디자인(평저선)하여 360도 회전이 가능하되 잘 넘어지지 않고, 조류변화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암초와



섬이 많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조선의 바다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소나무로 만들어서 강도가 세고 튼튼하였다. 이에 비해서 일본의 안택선은 삼나무나 전나무로 만들어져 정교하지만 약하고 속도를 증시한 V자형 바닥(침저선)으로 되어 빠르지만 썰물 때 갯벌 위에서 쉽게 넘어졌다[19]. 한국의 자연환경에 부합한 맞춤형 전선으로 디자인의 합목적성이 뛰어난 작품이었던 것이다. 이 배는 조선 돌격장 정걸의 작품으로 효율성과 과학성이 입증된 우수한 명품 디자인이다.

일본의 안택선은 쇠로 만든 못을 일(-)자로 판자를 연결했는데 반해 판옥선은 S자 모형의 나무못을 이용해서 판자를 연결하여 못이 쉽게 빠지지 않고 선박의 손상 없이 해체 후, 수리할 수 있었다. 재질과 제작방법에서 한 수 위인 판옥선은 충돌시 더 견고할 수 밖에 없었다[20].



사진 4) 판옥선과 안택선(출처 : 네이버블로그)

라. 전남 나주 나대용(羅大用)의 거북선

귀선(龜船)으로 불리는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 전선인 판옥선(板屋船)의 상체 부분을 개량해서 덮개를 덮은 구조이다[21]. 명종 11년 155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주도하에 임진왜란 직전 1591년, 선조 24년에 각종 무기제작 책임 관공이었던 조선기술자 나대용(羅大用)과 함께 만들기 시작하여 1592년 3월 완성하였다. 이로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고 15여회의 해전에 참가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자 가장 우수한 전투함으로 꼽힌다. 통일신라 장보고의 해상 활동이나 고려 왕조의 활발한 무역 활동은 모두 훌륭한 배를 보유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즉 고려시기 선박건조기술의 전통이 조선왕조에 계승되어 판옥선과 거북선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22].

거북선의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지붕덮개 두께가 12cm이상 되는 튼튼한 소나무 판자로 제작되었고, 뱃머리에 달린 디자인 용머리는 충돌시 왜선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지붕이 둥근 원형으로 왜군의 진입이 쉽지 않은 디자인에 철로 된 송곳을 박아서 적군을 원천봉쇄

한 것이다. 배 밑바닥은 U자형으로 안정적이 형태였기에 V자형의 왜선보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쉬웠다. 바닷물에 녹슬지 않는 나무못을 사용하여 선체가 견고하고 충격에 강하다. 창조적 기능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합목적 창의 디자인이다[23].



사진 5) 거북선(출처 :네이버블로그)

마. 전남 나주시 북암리 정촌 고분 금동식리

전남 나주 북암리 정촌 고분 돌방무덤에서 나온 이 유물은 금동식리(金銅飾履)라 불리는 고대 부장품으로 5세기경의 백제 금동 신발이다. 2014년 10월 24일의 언론발표에 의하면, 이 신발은 마한의 유물 중 가장 완벽한 형태로 백제 세공술의 절정 이라고 표현하였다. 특히 디자인부분을 보면 발등에는 섬세한 용(龍)모양 장식이 있으며 특히 코 부분에 대롱으로 연결하여 탈착이 가능한 용머리 장식이 달려있다. 위로 향한 용머리는 망자네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상징적 디자인이다. 백제가 받아들인 불교의 영향 때문에 금동신발의 바닥면에는 아래 가운데 문양 그림과 같이 고대 동아시아 왕족의 전유물이었던 용 문양과 도깨비 문양, 연꽃무늬 등이 담겨있다. 이것은 현대의 디자인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1500년 전 선인들의 뛰어난 정교성과 심미성을 가늠하게 하는 디자인 사례이다[24].



사진 6) 금동식리(출처 : 중앙일보(左右)문화재청(中))

바. 광주광역시 신창동 유적

(1) 파문칠기

광주광역시시 광산구 신창동 극락강 주변에서는 2100년 전에 조상들이 사용하던 파문(巴文)칠기라고 하는 바람개비 문양칠기가 발견이 되었다. 신창동유적으로부터 출토한 원형옷나무 칠기(목제)의 파문은 세계 공통

으로 햇살, 태양을 상징한다. 이는 광주에서 햇살, 빛을 이미 2000여년전 부터 상징적으로 사용했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 지금 광주광역시가 빛의 도시로 불리우고 “빛고를 광주”로 불리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임을 증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간직한 DNA다.



사진 7) 신창동유적 : 파문칠기(출처 : 광주박물관)

## (2) 최고의 수레바퀴

인류가 낳은 위대한 자동차의 발명은 결국 수레가 개선포여 만들어진 발명품이다. 자동차의 원조는 수레다. 수레의 등장은 거대 국가 건설에도 큰 역할을 했으니, 수레는 인류의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발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5].

광주광역시 신창동에서 기원전 1세기경 마한시대 유적에서는 2100년전 이미 조상들의 수레디자인이 시작되었다는 흔적이 출토되었다. 수레는 당시 소중한 운송 수단으로 신창동 유적에서 말이 끄는 최고의 수레바퀴가 마차와 관련된 수레 관련 부속구와 같이 출토되어 소와 말을 제사에 다 소비한다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기록이 무색하게 되었다[26]. 전체를 복원하면 바퀴살이 22개, 지름 120-160cm의 바퀴가 달린 마차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바퀴살이 많이 달린 수레바퀴는 가볍고 이동하기 편한 반면, 기술적으로 만들기 꽤나 어려운 것이다. 이런 수레가 다니려면 당시에 일정한 도로도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7].



사진 8) 신창동유적 : 수레바퀴부속구(출처 : 광주박물관)

## 사. 전남 장성 박수량 백비

의정부 우참찬까지 지낸 아곡 박수량(1491~1554)은 조선 3대 청백리 중 한사람이다. 조선 명종이 서해바다 암석을 골라 비를 하사하며 “비문을 새기다 그 청백함에 누를 끼칠까 염려되니 비문 없는 비를 세우라” 하여 그

비에는 한 글자도 쓰지 못하게 하고 다만 그 맑은 덕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을 ‘백비’라 하였다[28]. 전남 장성에 있는 백비는 박수량 선생의 청렴함을 상징하는 기념비로서 디자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디자인이 없는 디자인의 혁신성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가장 임팩트가 강하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디자인이다. 오늘날의 디지털시대에는 기기의 버튼 하나라도 더 줄이기 위해 수많은 전문 인력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600여년 전에 이렇게 과격적인 생각으로 심플한 디자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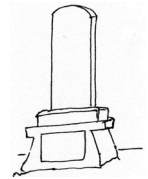


그림 10) 장성 아곡 박수량 백비

## 아. 전남 담양 소쇄원

전남 담양에 위치한 소쇄원은 조선 중종때인 1530년 경에 만들어진 정원이다. 조선시대 정원양식의 진수이자 한국정원의 원림으로 꼽히는 ‘소쇄원을 살펴보면 한국의 정원은 자연과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어디까지가 정원이고 어디까지가 자연인지 구분이 어렵다. 인간의 손길로 다듬고 가꾸어진 정원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정성스러운 손길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정원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연 정원 소쇄원[29]은 한국인의 자연 중시 사상, 즉 노자의 무위자연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1)소쇄원 광풍각

소쇄원 안의 광풍각 역시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자연 속에서의 유기적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정자의 가치는 그 건축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있는 터에 있다고 하여 ‘에콜로지’로서의 건축을 강조해왔다[30]. 광풍각 역시 땅의 기운, 물의 흐름, 바람 빛의 움직임까지 고려하였으며 특히 다른 일반 정자와는 달리 삼간사허(三間四虛)의 구조를 하고 있고 특히 ‘들쇠’를 사용하여 문을 모두 들어 올릴 수 있는 ‘들어 열개문’은 창과 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문도 되고 때로는 벽체가 되기도 한다. ‘들어열개문’을 활용한 한국전통주택의 벽체는 가변성과 공간의 확장성이 자유로운 독창적인 디자인을 지

니고 있다. 아울러 한옥지붕의 심미성을 강조하는 지붕과 홀수와 짝수로 판을 맞댄 것이나, 양지바른 언덕에 세운 정자는 제월당(霽月堂)이라 하였고 정원의 그늘진 곳에는 광풍각(光風各)이라 한 명칭에서 이미 우리민족의 정신인 음양오행사상이 한껏 느껴진다[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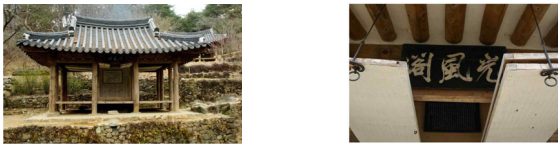


사진 9) 소재원 광풍각 들어열개문(출처 :네이버블로그)

#### 4. 디자인 DNA의 현대적 활용 사례

##### 가. 전남 나주 북암리, 영동리 고분

나주 북암리 고분 등은 제한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집적원리를 적용한 디자인의 효율성을 살린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에 최대의 정보를 집적시켜야 하는 반도체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아파트형 고분처럼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디자인 DNA가 바탕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사진 10) 나주 북암리 고분과 반도체 칩

##### 나. 전남 장성군 변이중 화차

이미 420여년 전에 장성군에서 첨단기술과 디자인의 혁신성이 만나 전방위적으로 움직임이 가능하게 만든 제품(화차)디자인 DNA가 대한민국 포병의 요람인 포병학교 장성 소재의 당위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2015년 6월에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첫 수출되었고, 앞으로 2022년까지 3억1,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할 계획인데, 이 역시 화차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사진11) 복원한 화차와 행주대첩 재연 그림(KNS뉴스통신)

한국 육군도 포병전력의 국산화에 노력을 기울여 19

85년부터는 K-55 자주포를 생산하여 약 1천여 대를 배치하고 있다.[32] 기능성,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디자인으로 화차의 원리는 오늘날 로켓 기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지역전남 고흥에 우주발사 센터가 설립된 것도 화차와 무관하지 않다.

##### 다. 전남 고흥군 판옥선과 나주시 거북선

1971년 한국현대사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세우고자 차관이 필요했다. 당시 가난한 한국경제로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과정에서 영국 '롱바텀' 회장이 한국의 조선 경험이 전무 하기 때문에 추천이 어렵다고 하자 현대 정주영 전 회장은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지폐 뒷면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설득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당신들 영국은 1800년대에 배를 건조했는데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선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 쇄국정책으로 우리의 산업화가 늦어졌을 뿐이지, 그 잠재력, 그 DNA는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설득하였고 지폐 속 거북선을 살펴보던 롱바텀 회장은 "당신의 조상에게 감사해야 할 겁니다."라고 긍정의 뜻을 나타냈다.

이렇게 해서 차관을 제공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한국의 조선 산업이 시작 되었는데 거북선은 오늘날 우리가 세계 1위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게 된 잠재력, 바로 그 디자인 DNA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사진 12) 세계 제 1의 조선소와 지폐속의 거북선

##### 라. 전남 나주시 정촌 고분의 금동신발

현대의 디자인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1500년 전 선인들의 금동신발 디자인의 정교함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이러한 전통이 있어 광주가 금형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며 또한 금형산업 특화도시인 광주에서는 매년 국제금형전이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심미성과 정교성은 선반기계를 생산하는 광주의 '화천기공'이 히든 챔피언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도 이런 잠재력이 바탕이 되었고, 아울러 세계 최초의 신발 끈은 우리 지역의 금형산업의 모태가 된 것임을 부정 할 수 없다. 광주의 금형산업 매출액이 전국 최고로 연평균 12%의 눈부신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정밀성의 DNA가 계승 발전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마. 광주광역시 신창동 유적

##### (1) 파문칠기

무등산의 절경인 입석(立石), 서석(瑞石), 규봉(圭峯) 중에서 해질 무렵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서석, 즉 「빛나는 돌」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신성시했고 이러한 연유로 고려 때 학자 목은(牧隱) 이색(李穡)은 지금의 사직공원 자리의 석서정에서 광주를 「光之州」라고 표현했다고 한다[33]. 이는 이야기가 빛고를 광주의 유래이다. 그러나 2100년전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발굴된 파문칠기의 파문은 태양, 빛을 전 세계적으로 상징하는 문양이다. 빛고를 광주의 유래를 다시 쓰게 할 소중한 자료이다. 빛의 도시임을 상징하는 광주시의 현재의 상징마크와 2100여년전의 파문칠기 디자인을 보면 선사시대부터 이러한 찬란한 문화와 디자인 DNA가 바로 오늘날 광주를 빛의 도시이자 光産業의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진 13) 파문칠기와 현재의 광주시 상징마크

그런가하면 2100년전 내구성강화를 위해 방부, 방수, 방충이 완벽한 옷칠 기술과 미적인 감각표현이 된 탁월한 백제초기 목공 기술을 볼 수 있다. 서구의 근대문물이 들어오면서 생활양식이 급속하게 변모하였다. 우리는 뒤늦은 산업화에 성공하였지만 우리다운 현대문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과 서구 근대문명을 제대로 융합시키지 못하고 있다. 디자인 경쟁력은 기본적으로는 공예문화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다[34]

이러한 유적들은 광주의 공예산업의 근원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공예산업을 키우려 애쓰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시도도 과거 찬란했던 공예 디자인 DNA 전통과 현대문명의 융합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결코 무관하지 않다.

##### (2) 최고의 수레바퀴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중국, 독일 등에 이은 세계 5위권의 자동차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유럽에

비해 많이 뒤늦게 시작했지만 자동차 산업의 중요함을 알고 국가, 기업, 국민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동차 강국으로 만들어온 것이다. 과거 수레가 사용되지 않았던 아메리카 대륙에 오늘날 많은 자동차가 다니듯이, 수레와 그 후손인 자동차의 발전은 그 가치를 알고 이를 활용하려는 국가, 기업, 국민들의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겠다[35].

그런데 광주광역시 신창동 유적에서는 이미 2100년 전부터 사용한 흔적이 있는 수레의 부속구가 발굴되었다. 말하자면 광주광역시가 자동차 생산 100만대를 향해 진력해 나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이시대의 몸부림이 아닐 수 없다.

#### 바. 소쇄원과 광풍각 들어열개문

순천시 국제 정원박람회는 대성공을 거두고 국가 정원 제1호로 인정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우리 지역 순천시에 국가정원이 탄생한 것이다. 소쇄원은 오백여년 전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사상인 무위자연을 디자인 컨셉으로 하는 작품으로 한국 최고의 대표적인 자연정원이다. 일찍이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소쇄원 자연정원을 만들었던 것이 우리지역 순천에 제1호 국가정원이 탄생하게 된 마중물이 되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들어열개문’ 역시 과거의 것을 토대로 현재는 최신의 아파트나 각종 관공서에서도 파티션 역할로 공간의 분리와 통합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아주 실용적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들어열개문’ 자체를 반으로 꺾어 한번 더 접어서 들어 올렸을 때에 문 길이가 길어 문 끝이 처마 밖으로 문이 나가던 것을 나가지않고 지붕아래 암전하게 접어서 넣을 수 있게 되어 한결 아름답고 간결해 보이게 발전하였다(아래 그림 참조).



사진 14) 들어열개문의 현대적 활용 사례

### Ⅲ. 결론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 고유의 전통사상과 그 사상의 영향을 받은 호남의 무등정신 등은 디자인 DNA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리



한 연구를 통해 다시금 디자인이 역사와 소통하고 전통과 문화를 만나며 사상이 스며든 이 시대의 소중한 문화 콘텐츠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문화나 사상은 진공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문화접변이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지구촌 시대에는 이 같은 현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이 최고로 발전하여 과거에 비하면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부해지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등 부러울 것이 없는 현대인들은 역설적으로 정신적 궁핍을 호소하며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게 된다. 첨단기술을 먼저 보유한 서양의 산업사회 영향으로 한때 동양에서는 무조건적 자기 버리기도 서슴치 않았다. 오리엔탈리즘의 과신으로 무조건적 옥시덴탈리즘(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동양에 의해 서양에 관한 왜곡되고 고정된 이미지나 편견을 인식이나 태도)이나 탈 아시아를 위해 몸부림치던 현상들은 이제 세계화를 경험하면서 자기 텃밭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기술의 발전이 만능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정서적 궁핍을 채울 수 있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사람들은 동 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우월이 아니라 구별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국가 안에서도 세계화를 외쳐 보고나서야 지역의 단위가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모던한 현대 디자인의 과분한 경험속에서 과거의 디자인 뿌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통해 호남 지역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 속의 디자인 DNA를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디자인은 동양과 서양의 사람과 문화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이다.

### 참고 문헌

- [1] 이어령, 우리문화박물지, 디자인하우스, 2015
- [2] 최범, 공예문화비평,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8
- [3] 이은숙, 우리정신 우리디자인, 안그래픽스, 2014
- [4] 박우찬, 한국미술사, 도서출판 재원, 25쪽, 2014.
- [5] 김종균, 한국의 디자인, 안그래픽스, 서문, 2014.3
- [6] 최범, 한국디자인 신화를 넘어서, 안그래픽스, 165쪽, 2013
- [7] <http://tip.daum.net/question/85119269/85119317?q=%EA%B3%B5%EC%9E%90%EC%9D%98+%ED%95%B5%EC%8B%AC%EC%82%AC%EC%83%81>
- [8] <http://blog.daum.net/4855028/15968256>
- [9] 000,인본디자인전략, 광주발전연구원, 권 호, 2012
- [10] 이재국, 디자인문화론, 안그래픽스, 26쪽, 2012.3
- [11] KBS 〈역사스페셜〉 - 명량대첩의 비밀 中
- [12] KNS뉴스통신/광주전남, 2011년11월23일(수)
- [13] 중앙일보 2014.10.24 종합2면
- [14] 광주드림 2015-01-22
- [15] <http://blog.naver.com/tmskdldvj4958/120074107993>
- [16] <http://www.gwa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5198>
- [1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sred7&logNo=80148600050>
- [18]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35&no=2978>
- [19] <http://alshrvndanf.tistory.com/102>
- [20] <http://yun-blog.tistory.com/613>
- [21] <http://www.gwa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5198>
- [22] [http://100.daum.net/cp/14\\_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100.daum.net/cp/14_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3] <http://blog.daum.net/sang7981/2040>
- [24]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1833>
- [25] 중앙일보 2014.10.24 종합2면 나주=정재숙 문화전문기자
- [2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sred7&logNo=80148600050>
- [27] 위약글 참조
- [28] [http://www.claimcare.co.kr/bbs/board.php?bo\\_table=claim\\_request&wr\\_id=5714&page=239](http://www.claimcare.co.kr/bbs/board.php?bo_table=claim_request&wr_id=5714&page=239)
- [2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ks&logNo=70146615268> 요약
- [30] <http://yun-blog.tistory.com/613> 참고
- [31] 이어령, 우리문화박물지, 디자인하우스, 236쪽, 2015
- [32] <http://alshrvndanf.tistory.com/102>
- [33] [https://ko.wikipedia.org/wiki/K9\\_%EC%9E%90%EC%A3%BC%ED%8F%AC](https://ko.wikipedia.org/wiki/K9_%EC%9E%90%EC%A3%BC%ED%8F%AC)
- [34]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35&no=2978>
- [35] 최범, 공예문화비평, 한국공예문화진흥원, 141쪽, 2008년
- [3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sred7&logNo=80148600050>

7&logNo=80148600050

— 저 자 소 개 —



송진희 (정희원)

1982년 원광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졸업.

1984년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 졸업.

1989년 독일 뮌스터대학교 시각커뮤니케이션 디플롬  
졸업.

〈주관심분야 : 디자인, 문화, 문화콘텐츠〉